

“멈춰버린 시간”...참사 현장 못 떠나는 유가족

남편 잃은 심정덕씨, 1년 3개월째 무안공항 머물러 9차 잔해 조사서 유해 추정 물체 5점 등 추가 발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다. 남겨진 이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긴 시간 고통 속에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로 남편 임자영씨(당시 69)를 잃은 심정덕씨(69)는 1년 넘게 무안국제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고, 기억 또한 사고 당일에 멈춘 듯하다.

퇴직 공직자였던 남편은 지인들의 골프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사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끊어냈고, 심씨는 이후 공항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했다. 현재 그는 공항 2층 침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심씨의 하루는 새벽 5시 공항 주변을 걷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고 초기에는 장흥 자택에서 왕복 1시간 30분을 오갔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아예 공항에 머물고 있다. 그는 “공항은 여행의 설렘이 있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참사의 기억이

남은 곳이 됐다”며 “집에 있어도 견디기 어려워 밖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심씨는 전기장판과 히터, 간이 샤워시설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장흥 집에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만 들른다. 그는 “이곳이 이제는 집과 다름없는 공간이 됐다”고 했다.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마지막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이다.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는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며 “유해와 유품을 온전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남은 이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재개된 유해 조사에 대해서는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유해와 유류품이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초기 수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그는 “유해와 유류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는 점이 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체 잔해 재조사하고 있다.

타깝다”며 “책임 소재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다. 일부는 수면제에 의존해 겨우 잠을 청하고 있으며, 깊은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공황은 이들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명확하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온전한 유해 수습이다. 한 유가족은 “공항 재개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

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상처 치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해와 유류품이 방치된 현실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로 인한 고통은 어떤 보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지만,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성환 청와대 경호총합수석

은 “조사 가능성을 국무조정실 신하 독립기구로 이관했다”며 “유가족의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 대응과 후속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9차 잔해 조사에서는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5점과 유류품 6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해 추정 물체는 총 65점이다. 이 가운데 9점은 실제 유해로 확인됐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맑음	06:33	달림	08:43
맑음	18:46	달림	23:51



광주	☀️	7~19
목포	☀️	7~16
여수	☀️	9~17
순천	☀️	6~19
구례	☀️	5~20
광주	☀️	5~10
신도	☀️	7~19
흑산도	☀️	6~12
고흥	☀️	6~19
진도	☀️	6~15

목포	미물(구)	05:08 / 17:08
	셀물(재)	10:10 / 22:19
여수	미물(구)	11:09 / 23:40
	셀물(재)	04:56 / 17:10

“지진으로 집이 흔들려요”

만년필 ○·○간 밤에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집이 흔들린다’는 주민의 119 신고가 잇따라.

22일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0시51분께 전남 장성군 북쪽 18km 지역에서 2.4 규모의 지진이 발생.

진원지는 북위 35.46도, 동경 126.81도, 발생 깊이는 7km로 측정.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전남 IV(4), 전북 III(3), 광주 I(1)였다.

이에 2명의 장성 주민들은 지진의 진동으로 “주택이 흔들렸다”며 소방 등에 안전성 등을 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장성소방과 전남소방본부 관계자 등이 해당 주택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한편 이날 장성군은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주 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송태영 기자 sty1235@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 26일 출범 시민사회·학부모·청년·전문가 등 555명 구성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제안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가 대규모 위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2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출범한다.

교육비전위는 당초 1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총 555명으로 확대됐다. 시민사회와 학부모, 청년, 교직원,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준비위원 13명을 먼저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정재준 교수를 임명했다. 준비위원회는 출범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돼 조직 체계 확립과 운영 방안 마련, 출범식 준비 등을 맡는다.

위원들은 출범 이후 5월 14일까지 통합 교육과 관련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들 토대로 교육비전위는 50개 핵심 과제를 도출해 양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 통합기구에 전달하고, 향후 통합교육감 당선인에게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321명, 광주 223명, 타 시·도 11명으로 구성돼 지역 안배도 고려됐다.

정 위원장은 준비 단계 이후에는 민간 중심 조직으로 운영해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나주시장 찾은 시민들 휴일을 맞아 22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마련된 나무전시 판매장에는 봄을 맞아 식재 모욕을 고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 기념식 ‘항쟁 심장부’ 옛 전남도청서 열리나

복원 완료·개관 등 상징성 높아...개최되면 6년 만 국가보훈부·유족회 ‘공감’...동선·경호 등 조율

제46주기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 개최지로 항쟁의 심장부였던 옛 전남도청이 급부상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기념식이 성사될 경우 2020년 제40주기 이후 6년 만에 ‘현장성’을 전면에 내세운 행사가 될 전망이다.

22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5·18 관련 단체들과 만나 기념식 장소와 형식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핵심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5·18을 기릴 것인가’에 맞춰졌다.

보훈부는 올해 기념식을 단순한 추모를

넘어, 항쟁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환기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특히 최근 12·3 비상계엄 극복 등 사회적 격변을 거치며 민주주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그 상징 공간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원형 복원을 마친 도청 건물외 5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다.

현재까지는 기념식을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진행하되, 행사 전후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공식 일정 포함하는 방

안에 대해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기념’과 ‘추모의례’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석 내빈 규모와 유가족 배치, 경호 수준, 이동 동선 등 실무적인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기념식이 형식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광주를 찾는 이들이 반드시 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들의 뜻을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기념식의 격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접근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향사랑기부로 유기견 안락사 ‘제로’ 광주 동구, 8억7900만원 모금 36마리 입양

광주 동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견 안락사 제로(0) 프로젝트’가 유기견 입양 촉진과 동물복지 인식 확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기부로 기반으로 한 동물보호 정책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8억7900만원으로, 총 8927명이 참여해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특히 지난해 8월 개소후 ‘피스명명 입양센터’는 현재까지 3047명이 방문했고, 78건의 입양 상담을 거쳐 36마리의 유기견이 새 가족을 찾았다.

이와 함께 외부 행사 15건을 통해 시민 접점을 넓혔고, 12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등 참여 기반도 확대됐다. 홍보 측면에서도 SNS 조회수 782만9000회, 홈페이지 방문자 2만 628명을 기록하며 사업 취지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현재 입양센터에는 꽃분이, 누렁

지, 포키, 밀키, 콜라, 소다, 팍팍이 등 7마리의 유기견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동구는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민간 기부 플랫폼 ‘위그브’와 함께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해당 기간 10만원 이상 기부 참여자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 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친구 추천 이벤트’도 병행된다. 참여자가 기획전을 공유해 신규 가입자가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추천인에게는 1인당 네이버페이 2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내달 4일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

광주·전남 2214명 응시

오는 4월 4일 치러지는 2026년 제1회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광주와 전남에서 총 2214명이 응시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22일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지역 응시자는 총 1437명으로, 초졸 73명, 중졸 223명, 고졸 1141명이다. 이는 지난해 1회 시험보다 84명 줄어든 규모다. 시험은 초·중졸의 경우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며, 고졸은 광주공업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재소자와 소년원생은 광주교도소의 광주

소년원에서 시험을 치른다.

전남은 총 777명이 지원했으며, 초졸 39명, 중졸 116명, 고졸 622명이다. 시험장은 오룡중학교, 승평중학교, 목포교도소 등이다. 응시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중·고졸 시험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초콜 시험에는 흑색 볼펜을 준비해야 한다. 합격자는 오는 5월8일 각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구, 지속가능 돌봄체계 구축 광주 첫 대체돌봄·휴식비 지원

광주 서구가 광주 최초로 돌봄 가족에게 휴식 활동비를 지원한다.

서구는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공공돌봄 정책으로 돌봄자의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서구는 ‘착한서구, 따뜻한 하루’라는 슬로건 아래 돌봄자가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대체돌봄과 휴식 활동을 결합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서구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일8시간의 대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자가 여행이나 문화체험, 공연 관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0만원의 휴식·문화 활동비를 함께 지원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